

# 일본의 오키노시마 유산군 사례로 본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 및 시사점

이정선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Corresponding Author : zenith701\_@naver.com

## 국문초록

2018년은 지난 1978년,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최초로 탄생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본 연구는 1972년에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이행과정에 관한 개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 간의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흐름과 현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7년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일본의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사례를 통해, 최근의 문화유산 등재 경향과 그 경위에서 보이는 주체들 간의 심사 및 결정을 둘러싼 불균형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고하였다.

본고는 반세기 가까운 이행 가운데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유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의 대응 체제를 고찰함으로써,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산 담론의 학술적 의의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협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문화유산의 등재와 보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세계유산협약, 글로벌 전략, 살아있는 전통, 유산 외교, 오키노시마

투고일자 2018. 06. 05 • 심사일자 2018. 08. 13 • 게재확정일자 2018. 08. 22



## I. 서론 : 세계유산 40주년을 맞이하며

2018년은 지난 1978년,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최초로 탄생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1972년 11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하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8년 제42회 세계유산위원회를 기준으로 총 1092건<sup>1</sup>의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탄생 경위를 기술한 역사 문서에 의하면, 이 협약은 초기부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간의 '공정한 균형(equitable equilibrium)<sup>2</sup>'을 지향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협약은 이행 초기부터 기존의 유산에 대한 개념이 서구 엘리트 중심의 문화유산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불균형 시정의 일환으로, 1994년 '대표성 있고 균형 잡힌, 신뢰 있는 세계유산 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 for a Representative, Balanced and Credible World Heritage List, 이하 글로벌 전략)'이 도입되었다. 본 전략으로 인해 세계유산협약의 중심축인 유네스코 뿐만 아니라, 유산을 평가하는 자문기구와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주체들 간에 다각적이고 문화인류학적 해석을 추구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1980년대 '글로벌 연구'에서 1994년의 '글로벌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2000년 '케언

스 결의' 및 2004년 '케언스 쑤저우 결의' 등 거듭되는 개선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련의 불균형 시정의 변천사는, 구미 중심의 주류(mainstream)에서 세계유산의 다양성과 대표성(representativity) 확대로의 이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 근저에는 유산에 대한 인식의 지평 확장,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향하는 관점의 전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Meskell(2013) 등 서구의 학자들은, 2000년 이후 글로벌화의 가속화에 따른 다문화주의와 기존의 구미 중심주의에 대하여 부상한 BRICs 등 일부 회원국 간의 블록화 및 다자간 동맹 등의 현상이, 유산 등재를 둘러싼 체계 모니의 변천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sup>3</sup> 뿐만 아니라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자문기구 및 위원회 간의 유산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21개 위원국 구성의 변화 및 정치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제도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한 2002년 '부다페스트선언문(The Budapest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의 세계유산 전략목표로 Credibility (신뢰), Conservation (보존), Capacity-building (역량구축), 그리고 Communication (소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4C를 수립한 사실을 들 수 있다.<sup>4</sup> 이어서 2007년에는 기존 목표에 Community (공동체)를 추가한 5C로 확장하여, 유산 보존 주체로서 지역 공동체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필수임을 천명했다.<sup>5</sup>

1 등재된 총 1092건의 세계유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845건, 자연유산 209건 및 복합유산 38건이며, 이 중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54건에 달한다.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en/list/>, 최종확인 2018년 8월 29일)

2 Batisse, Michel and Bolla, Gerard, 2005, The Invention of "World Heritage", Les Cahiers d' Histoire, Association des anciens fonctionnaires de l' UNESCO, Paris, p.27.

3 Meskell, Lynn, 2013, 'UNESCO's World Heritage Convention at 40: Challeng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of International Heritage Conservation', Current Anthropology, 54 (4), p.489.

4 UNESCO, 2002, The Budapest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WHC-02/CONF.202/5), World Heritage Committee, p.1.

5 UNESCO, 2007, Proposal for a 'Fifth C' to be added to the Strategic Objectives, (WHC-07/31.COM/13B), World Heritage Committee, p.2.

세계유산협약 이행과정에 관한 개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는 2017년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일본의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sup>6</sup>의 사례를 통해, 최근의 등재 추진과정과 그 경위에서 보이는 주체들 간의 심사 및 결정을 둘러싼 불균형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논고하였다. 이 사례를 선정한 주요 원인은, 해당 지역이 한반도와 일본과의 교류사 및 고고학·역사문화사적으로 연구가치가 높다는 점과, 유산 해석을 둘러싸고 신청국과 자문기구 및 위원회에 이르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혀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유산 관리체계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본 유산의 신청국인 일본 측의 대응이 향후 우리나라 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에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일본의 등재(nomination dossier) 및 현지 학술문서,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록(summary of records), 위원회 심의과정 동영상 등 문헌 및 영상 자료 분석을 활용하였다. 2차적으로는 일본 내의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를 토대로 불균형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종합하면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은,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유산 심사 및 등재 과정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집약한 유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오키노시마 유산군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최신 동향과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자문기구의 가치 해석과 향후 우리나라의 등재를 위한 방향성 모색에 유용한 참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일본의 사례 :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

### 1. 유적의 개요 및 등재과정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은, 표면적으로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sup>7</sup>와 21개 위원국간의 견해가 '등재 권고(Inscribe)<sup>8</sup>'로 일치하기 때문에 일견 불균형을 부각시키는 사례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의 해석을 둘러싼 신청국과 이코모스, 그리고 위원국간의 상충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가치 입증에 필수적인 증거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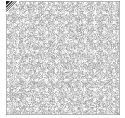
먼저 유적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 유산군은 4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성스러운 섬(Sacred Island)'과 연관된 8개의 구성요소(components)로 구성된 문화유산<sup>9</sup>이다. 각 요소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의 해협에 있는 규슈 북부의 무나카타 지역에서 60km 북서쪽에 위치한 ①오키노시마(沖ノ島) 섬을 비롯하여 ②코야지마(小屋島) 암초, ③미카도바시라(御門柱) 암초, ④텐구이와(天狗岩) 암초 등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宗像大社沖津宮, ①~④), ⑤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宗像大社沖津宮遙拜所)와 ⑥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宗像大社中津宮), ⑦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宗像大社辺津宮)과 ⑧신바루·누야마 고분군(新原

6 신청국인 일본에서 제시한 원 명칭은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이며, 공식 영문 명칭은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이다.

7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세계의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의 보존에 관한 국제적인 비정부 조직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 심사, 보존 관리, 권고안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기구(advisory body)이다. 1964년 베네치아 헌장에 의해 1965년 설립되었다.

8 심사 결과는 '등재 권고 (Inscribe)', '보류 (Refer)', '반려 (Defer)', 그리고 '등재 불가 (Not to inscribe)'의 4단계로 분류된다.

9 오키노시마 섬에서는 1954년부터 1971년 사이 3차례의 학술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발굴 작업 결과 고대 한반도나 중국 등으로부터 전래된 거울, 금반지 등 8만 점에 이르는 국보급 유물의 봉헌품이 출토되어, '바다의 정창원(正倉院, 고대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이라고도 불리운다.



奴山古墳群)이다. 유산군의 세부 위치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①오키노시마 섬은 4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자연 숭배에 기초한 제례의 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연대기적 기록이다. 그리고 무나카타타이샤 신사는 각 3개의 신앙 장소, 즉 오키노시마 섬의 오키쓰미야 신사, 오시마 섬의 ⑥나카쓰미야 신사 그리고 규슈 본토의 ⑦헤쓰미야 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개의 신사는 고대 제사 유적을 기원으로 하며, 지금도 신앙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오키노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항해술에 능한 고대 호족

인 무나카타(宗像) 가문이 해양 지역을 무대로 대외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4세기 후반에 일본과 중국, 한반도의 고대 왕조와 교류가 활발해지자, 오키노시마에서는 항해의 안전과 교류의 성취를 기원하는 제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제사는 고대 국가와 무나카타 호족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 제의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고대 왕조와 교류를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무나카타 가문이 오키노시마 섬에 짓은 무나카타의 세 여신 신앙<sup>10</sup>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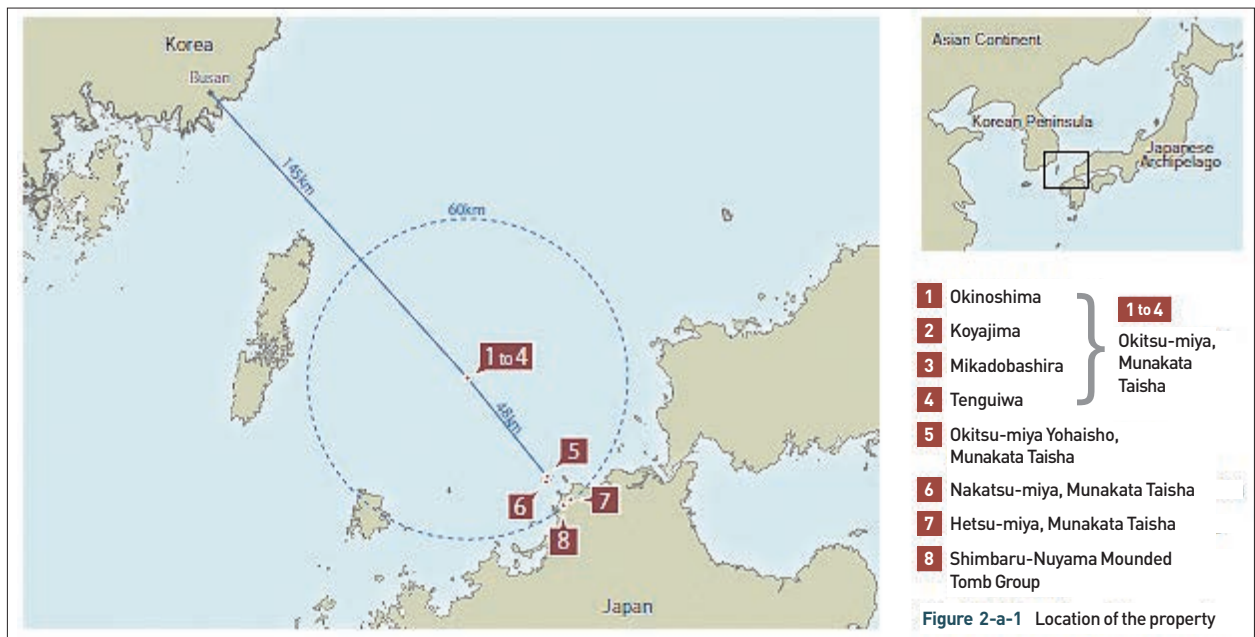


그림 1.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위치도 (출처: Japan, 2016, The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 Nomination Dossier, Agency for Cultural Affairs, Japan, p.26에서 필자 수정)

10 『일본서기(日本書紀)』의 본문 및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무나카타 세 여신의 탄생 신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 건국 신화의 주요 신인 아마테라스(アマテラス)와 스사노오(スサノヲ)가 맹세할 때,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의 검(十握劍)을 깨물고 뿜어낸 숨의 안개에서 타고리히메(タゴリヒメ), 타기츠히메(タギツヒメ), 이치키시마히메(イチキシマヒメ)라는 세 여신이 탄생했다. 세 여신은 아마테라스의 칙명(神勅)에 의해 무나카타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고대 항로에 해당하는 '바다의 북쪽 길(海北道中)'에 나타난 이후, 국가의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는 무나카타 세 여신이 '미치누시노무치(道主貴)', 즉 모든 길을 인도하는 가장 고귀한 신으로 추대 받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여신들의 출현 장소와 오늘날의 현지 기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무나카타의 세 여신이 일본 건국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출처: 白石太一郎, 2009, 『考古学からみた倭国』, 青木書店, p.254. 및 무나카타타이샤 홈페이지 <http://www.munakata-taisha.or.jp/html/sanmiya.html>, 최종확인 2018년 5월 31일)

11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 홈페이지. (<http://www.okinoshima-heritage.jp/promotions/>), 최종확인 2018년 5월 31일

또한 ⑤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는 18세기까지 오키노시마 섬을 멀리서 참배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마지막으로 ⑧신마루·누야마 고분군은 오키노시마 섬에 대한 신앙의 전통을 키운 무나카타 가문의 존재를 증명하는 분묘군으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5기를 포함한 크고 작은 41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유산군의 관련 전경은 <사진 1>과 같다.

오키노시마는 성스러운 섬을 숭배한 일본인들의 세 여신 신앙 이외에도, 다양한 금기 사항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선 섬 전체가 여신의 몸으로 성역(聖域)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상륙을 허락받은 남성은 부둣가에서 바닷물에 몸을 담가 부정을 없앤 후에야 섬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섬에서 보고 들은 것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며, 나무나 풀, 흙 등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들 수 있다.<sup>12</sup>

일본 측이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OUV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천과정에서 제시한 등재 기준은 (ii), (iii) 및 (vi)이다. 각 기준의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ii) 이 유적은 오키노시마에서 시작된 고대 제사의 변천으로 4세기부터 9세기 동아시아의 가치관의 교류를 나타낸다.

(iii) 이 유적은 섬을 숭배하는 문화적 전통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물질적 증거이다. 특히 오키노시마는 1,500년 이상 신성한 섬으로 자리매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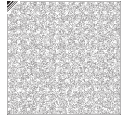
(vi) 오키노시마 진흥에서 무나카타 여신 신앙의 발자취를 전승하는 유산군은,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살아있는



사진 1. ⑤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출처 : Japan, op. cit., p.40.)

12 ICOMOS, 2017, Evaluations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ICOMOS report for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HC-17/41.COM/INF.8B1), ICOMOS, p.147.

13 日本文化庁, 2016,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 『世界遺産一覧表への記載推薦書(全文)』, p.26. 일본 문화청이 제출한 본 유산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의 등재 기준을 필자가 번역하였다.



전통(living heritage)'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

유산의 등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오키노시마 유적이 2009년 1월 5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직후인 1월 24일, 후쿠오카 현의 무나카타 시(宗像市)와 후쿠쓰 시(福津市)는 공동으로 시민, 경제 단체, 문화 교육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世界遺産推進会議)를 신속히 설치하였다. 세계유산 추진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한 이 단체는, 등재 이후에도 꾸준히 '세계유

산 등재 기념 교토 심포지엄 (2017년 11월)'을 시작으로 규슈박물관 판넬전 및 심포지엄 (2018년 1월), 도쿄 심포지엄 (2018년 2월) 등 각 지방에서 홍보·계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sup>14</sup>

주목할 점은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를 중심으로, 30개에 이르는 시민단체와 상공회,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이 관민일체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성 단체의 세부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의 30개 구성 단체

분야	구성 단체
경제 단체 등	후쿠오카 경제 동우회 (시민대표와 중북) (福岡経済同友会)
	후쿠오카 현 상공회의소 연합회 (福岡県商工会議所連合会)
	후쿠오카 현 상공회 연합회 (福岡県商工会連合会)
	후쿠오카 현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福岡県農業協同組合中央会)
	후쿠오카 현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 (福岡県漁業協同組合連合会)
	무나카타 시 상공회 (宗像市商工会)
	후쿠쓰 시 상공회 (福津市商工会)
	무나카타 관광협회 (宗像観光協会)
	후쿠쓰 시 관광협회 (福津市観光協会)
	무나카타 어업 협동조합 (宗像漁業協同組合)
시민 대표	후쿠오카 경제 동우회 (福岡経済同友会)
	겐카이지구 커뮤니티 운영협의회 (玄海地区コミュニティ運営協議会)
	오시마지역 커뮤니티 운영협의회 (大島地区コミュニティ運営協議会)
	가쓰우라 지역 만들기 추진협의회 (勝浦地域郷づくり推進協議会)
	쓰야사키 지역 만들기 추진협의회 (津屋崎地域郷づくり推進協議会)
	구지지구 만들기 추진협의회 (宮司地区郷づくり推進協議会)
	무나카타, 후쿠쓰 시민 조직 [무나카타 청년회의소] (宗像・福津市民組織 [宗像青年会議所])
문화 교육 단체 등	전문가 회의 대표 (専門家会議代表)
	후쿠오카 현 문화단체 연합회 (福岡県文化団体連合会)
	후쿠오카 교육대학 (福岡教育大学)
	토카이대학 후쿠오카 단기대학 (東海大学福岡短期大学)
	일본 적십자 규슈 국제 간호대학 (日本赤十字九州国際看護大学)
	무나카타다이샤 (宗像大社)
행정기관	미야지타케 신사 (宮地嶽神社)
	후쿠오카 현 (福岡県)
	후쿠오카 현 교육위원회 (福岡県教育委員会)
	무나카타 시 (宗像市)
	무나카타 시 교육위원회 (宗像市教育委員会)
	후쿠쓰 시 (福津市)
	후쿠쓰 시 교육 위원회 (福津市教育委員会)
후쿠오카 현 시장회 (福岡県市長会)	

(출처: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 앞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 번역) (최종확인 2018년 5월 31일)

14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 앞의 홈페이지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OUV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의 장도 마련되어, 일본 국학원대학 연구진을 중심으로 고고학, 역사학·민속학의 관점에서 유산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扶安 竹幕洞 祭祀遺蹟)<sup>15</sup>과의 비교 연구 등 제사 고고학 연구 및 전시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무엇보다 1992년 무나카타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김해 시의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한·일 교류 기념으로 2015년에 '신이 깃든 섬, 오키노시마 섬' 특별전을 개최한 사실 또한 주목을 끈다. 그 후 2016년 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되어, 그 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코모스 현지 실사가 진행되었다.<sup>16</sup>

이어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를 두 달여 앞둔 2017년 5월 6일, 이코모스는 일본 측에 해당 유산의 총 8개의 구성요소 중 ①오키노시마 및 3개의 암초(②~④)로 제한하는 조건부 권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나머지 4개 요소(⑤~⑧)에 대해서는 “지역적이나 글로벌 가치보다는 국가적인 중요성이 강하다”<sup>17</sup>는 논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이러한 내용을 명칭에 반영하여, 구성요소를 오키노시마 및 3개의 암초로 한정된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Sacred Island of Okinoshima)”로 변경할 것을 조언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코모스가 일본이 앞서 제출한 3가지 등재 기준 중 (ii)와 (iii)은 인정한 반면, (vi)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 고대 제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인 『고사기(古事記)』과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술된 무나카타의 세 여신 신앙을 숭배의 실질적인 증거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017년 7월 9일에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이코모스로부터 제의 권고를 받았던 4개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등재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본 사례는 표면적으로는 자문기구의 평가와 위원국의 결정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배후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 이상의 괴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불균형의 쟁점을 둘러싼 다각적인 접근과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 2. 불균형의 쟁점

### 1) 심사 및 등재의 불일치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 사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코모스가 제시한 구성요소 축소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권고를 둘러싸고 추천국과 자문기구, 그리고 위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했다는 점이다. 우선 이코모스는 해당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인정 후, 등재를 전제로 한 조건부 등재를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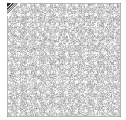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신청국인 일본 측이 이코모스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본래 8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괄 등재와 원 명칭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부를 비롯한 후쿠오카 현 등 지역 자치

15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 소재의 부안 죽막동 유적은, 중국, 일본 등 고대 동아시아 해상 문화와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제사유적으로, 1992년 발굴조사 결과 백제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 제사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2017년 10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1호로 지정되었다. (출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보도자료, 2017. 10. 19.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 고대 해양 제사 흔적 · 백제~조선 시대 해양 제사 문화 변천과정 등 -)

16 추진 경위는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에서 발행한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연구보고서 I」, 2011년 서문 및 〈김해뉴스〉 2015.6.17 “금기의 땅, 오키노시마섬” 특별전 기사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했다.

17 ICOMOS, 2017, op. cit., p.140. (원문) However, ICOMOS considers that the importance of the Munakata Clan (종락) appears of national importance rather than global or regional.

18 Ibid., p.143.



단체의 총체적인 외교력이 작용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코모스의 조건부 권고를 접수한 직후 후쿠오카 현 오가와 히로시(小川洋) 지사는 2017년 5월 19일 각료 4명과 회의를 소집하여 전 구성요소 등재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니혼게이샤이 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히로시 지사는 무나카타 시 및 후쿠즈 시의 두 시장과 무나카타타이샤 신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등 다방면에 걸쳐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 장관은 “해당 지역의 의향을 바탕으로 제외된 요소를 포함해서 등재 추진을 계속할 것”라고 피력했다.<sup>19</sup>

당시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등 현지 언론에서는 이코모스가 제외를 요구한 4건을 모두 포함하는 등재 경위를 보도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미야타 료헤이(宮田亮平) 문화청<sup>20</sup> 장관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직전인 6월에 오키노시마 관련 유산군을 한 장의 수목화로 직접 그려서 8개 구성요소의 일체성을 각국에 호소하는 로비를 벌인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 측은 6월에 21개 위원국 중 11개국의 유네스코 대사를 초빙하여 무나카타타이샤와 국보급의 소장 유물을 안내하며, 무나카타 유적에 갖든 다신교의 애니메이션 등 민족 신앙은 성신설에 근거한 안녕을 기원한다는 주장으로 사전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sup>21</sup> 이는 이미 등재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일본 측이 추가적으로 구성요소의 일괄 등재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적인 외교 활동을 벌 빠르게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필자가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심의를 진행한 폴란드의 야체 푸르홀라(Jacek Purchla) 위원회장이 본 유적의 8개 구성요소를 일괄 등재할 것인지 혹은 이코모스의 권고대로 4개로 한정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대상(major issue)임을 강조하며, 21개 위원국들의 명확한 결정을 촉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sup>22</sup> 그만큼 세계유산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의 포함 유무는, 신청국 입장에서 보면 구성요소 소재지의 관광과 브랜드 홍보, 경제 부흥 등 해당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코모스 측으로서는 자문기구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이는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참석한 이병현 주(駐)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주장대로, 자문기구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궁극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로 귀결된다는 논지와도 일맥상통한다.<sup>23</sup>

구성요소의 일괄 등재를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2013년 ‘후지 산(富士山),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sup>24</sup>의 전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문화유산으로서 후지 산의 가치를 평가한 이코모스는, 구성요소 중 후지 산에서 45km 떨어진 시즈오카(静岡)현의 미호노마쓰라(三保松原)를 제외토록 하는 사전 권고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미호노마쓰바라는 후지산과 일체’라는 논리로 위원국들을 설득한 결과, 구성요소로 인정받아 등재가 결정되었다.

19 <日本經濟新聞> 2017.5.19. ‘官房長官「一括登録へ努力」 沖ノ島の世界遺産登録(관광장관「일괄 등재 노력, 오키노시마 세계유산등재)」 보도자료

20 문화청은 일본의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한다. 도쿄예술대학장을 지낸 금공 작가 출신의 미야타 문화청장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22대 문화청장을 역임하였다.

21 <毎日新聞> 2017.7.17. ‘沖ノ島の一括登録 文化庁長官の水彩画が威力(오키노시마의 일괄 등재 문화청 장관의 수채화가 위력)’ 보도자료

22 ‘41st session of the Committee’, 2017년 7월 9일자 심의 영상, ‘Item 8B.19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 (<https://whc.unesco.org/en/sessions/41com/records/?pattern=okinoshima#t-qz3hmdMiMg2209>), 최종열람 2018년 5월 31일

23 ‘41st session of the Committee’, 위의 영상

24 원 명칭은 ‘富士山—信仰の対象と芸術の源泉’이며, 공식 영문 명칭은 ‘Fujisan, sacred place and source of artistic inspiration’이다.



또한 이코모스의 사전 ‘반려(Defer)’에서 등재로 성공시킨 일본의 사례는, 이미 2007년의 ‘이와미 은광 및 문화 경관(Iwami Ginzan Silver Mine and its Cultural Landscape)’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2007년 6월 제31회 세계유산위원회를 한 달 남짓 앞둔 상태에서 이코모스는 이 유산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불충분을 이유로 구성요소 전체에 대한 등재 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대응하여 시마네(島根) 현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실과 문화청은, 공동으로 영문 110쪽에 달하는 반론서를 작성하여 오히려 이코모스 지적사항의 오류를 바로잡고 보충하여 유적 보존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5</sup> 그 배경으로는 당시 일본 정부 대표인 곤도 세이이치(近藤誠一) 대사의 열성적인 교섭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와 정부기관인 문화청 간의 긴밀한 협업, 그리고 일본 대표단과 위원국 담당자들과의 협상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막판 반격에 나선 점이 역전 등재에 주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미 은광 및 문화경관’ 역시 일본이 외교력 및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한 등재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무나카타 유산군과 후지산, 그리고 이와미 은광 등의 사례는, 2016년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연유산의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sup>26</sup>의 사전평가를 21개 위원국 측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뒤집어 등재로 이끈 ‘텐산산맥 서부지역(Western Tien-Shan)’과는 다른 양상의 대비를 이룬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이 공동 신청한 ‘텐산산맥 서부지역’의 경우,

IUCN의 사전 ‘반려(Defer)’ 평가를 위원회 측이 세계유산 목록의 불균형 시정의 일환으로 2단계 끌어 올린 역전(逆轉) 등재로 귀착되었다.<sup>27</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키노시마 유산군은, 일차적으로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사전 권고를 신청국인 일본이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차적으로 위원국 역시 이코모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공통점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위원국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각각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및 IUCN보다는 신청국의 주장을 옹호했다는 사실이다. 즉, 오키노시마 유산군의 경우 대부분의 위원국이 이코모스의 평가에 우선하여 일본 측의 견해를 지지하여, 8개 요소의 일괄 등재에 합의한 점을 알 수 있다.<sup>28</sup>

이 같은 추세는 Meskell(2015) 등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세계유산 심의의 역전현상 및 자문기구의 공신력 저하<sup>29</sup>라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례는 자연유산인 ‘텐산산맥 서부지역’에 이어, 자문기구의 권고에 대한 위원국의 불신을 재확인시켜주는 최근 세계유산 등재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또한, 표면상 이코모스의 평가와 21개 위원국의 최종심사 결과가 ‘등재(Inscribe)’로 결과적으로는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면에서 발생하는 유산의 세부적인 가치 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과 이에 수반되는 조율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 2) ‘살아있는 전통’을 둘러싼 견해

두 번째 쟁점으로 ‘살아있는 전통(living tra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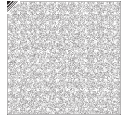
25 일본 측의 등재신청서에 대한 이코모스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즉 (1)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동서 문명 교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광산 유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상세한 물증 미흡, (2) 16세기의 제련 기술과 운영 형태를 알리는 중요한 고고학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3) 은광과 광산촌, 가도 항구와 항구 도시 등 광산 활동이 어떻게 현저한 경관을 형성했는지에 관한 세부 연구 필요, (4) 구성요소 지정·선정의 범위 불충분, (5) 일본 이외의 다른 광산 유적과의 비교 연구에 관한 정보 미비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출처: <日本經濟新聞>, 2007. 5. 14. ‘石見銀山遺跡で反論書作成’)

26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이하 IUCN)는 1948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세계유산협약에서 자연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문기구로서 환경 조사 및 보전 활동을 총괄한다.

27 UNESCO, 2016, Summary records of the debates held in Istanbul, (WHC/16/40.COM.INF.19), World Heritage Committee, pp.188-189.

28 한편 이병헌 대사는 오키노시마 유산군과 관련하여 이코모스의 조언에 따라 8개 구성요소간의 명백한 연관성(clear link)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영상 자료에 반영된 선박의 육일승천기(旭日昇天期)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1st session of the Committee’, 앞의 영상)

29 Meskell, L., Liuzza, C., Bertacchini, E. and Saccone, D. 2015.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 (5), pp. 423~440.



라는 가치를 신청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자문 기구가 평가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은 이코모스로부터 추천 단계에서 살아있는 전통을 내세운 (vi)을 미충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상 안전 기원의 전통이 오키노시마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본 기준의 불인정에 대해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의 77항의 등재 기준 (vi)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30</sup>

이처럼 운영지침에서는 등재 기준 (vi)에 대해 신앙 등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된(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살아있는 전통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코모스 측은 문헌을 토대로 한 세 여신 신앙이 무나카타 지역 주민의 신앙적 믿음의 원천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등재신청서와 추가 정보 자료 등에 기술된 세 여신 신앙의 장소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31</sup>

또한 살아있는 전통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등에 관해서도 이코모스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오키노시마의 금기 등 다양한 의식이 18세기 이전에 합법화되지 않았고, 현대적인 산물이라고 평가한 대목에서도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의식이 "폐지된 관습의 부활과 재해석의 결과물이기는 하나, 오래된 전통 혹은 구성요소와 연관된 특출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sup>32</sup>고 기술한 평가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Schmitt(2009)가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은 '사회적으로 형성된(socially constructed) 산물'<sup>33</sup>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정치학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단절된 전통을 오늘날 커뮤니티 및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부흥시키고 계승하는 노력 역시 광역적인 관점에서 전통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상 대대로 전승된 관습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혹은 최근의 재창조된 의례 역시 문맥에 따라서는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살아있는 전통과 최근에 복원된 전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답론은, 오늘날 유형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및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함한희(2015)는 학계 일각에서 만들어진 전통을 비판하는 입장의 경우, '복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복원의 의도와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논의의 가능성을

30 UNESCO, 2016,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orld Heritage Centre, p.16 및 문화재청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한글 번역본 p.54 참조.

31 ICOMOS, 2017, op. cit., p.140. (원문) it seems that differences exist among the written sources with regard to the places of enshrinement of three goddesses.

32 Ibid., p.143

33 Schmitt, Thomas, 2009, 'Global Cultural Governance: Decision Making Concerning World Heritage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Erdkunde 63(2), p.110.

언급하였다. 이는 결국, 문화유산에 내재된 살아있는 전통을 후세가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과 더불어, 복원의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sup>34</sup>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살아있는 전통에 대한 논의는, 등재 후 2017년 10월 7일 개최된 일본 이코모스 위원회의 후속회의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필자가 참석한 제 4소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나카타의 세 여신 신앙을 반영한 기준 (vi)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전통의 해석에 관한 토론의 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고의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4년의 글로벌 전략 이후 강조되어 온 지역 주민 및 토착민과 장소와의 상호작용 등 유산에 내재된 무형적(intangible) 요소가 OUV 입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등재 기준 (vi)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코모스가 강조한 '문화적 전통의 물증(tangible evidence of the cultural tradition)'<sup>35</sup>과, 통일성을 갖춘 입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입증의 논리성과 일관성이야말로, 점점 심사 잣대가 엄격해지는 세계유산 등재에 필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유산센터가 '세계유산 등재기준(vi)에 관한 주제연구'를 보고한 바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오키노시마 유산군의 제41회 위원회 심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위원국들이 살아있는 전통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 (vi)을 지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sup>36</sup> 즉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개념을 대다수의 주체가 공유하게 된 점

은 유산의 무형적 요소에 대한 총의(總意, consensus)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자문기구 등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전통의 전승 과정과 지속 기간, 복원 방법, 기록의 일관성 등의 요소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지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은, 세계유산의 개념을 둘러싸고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해석과 견해가 상충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집약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3) 글로벌 및 국가적 가치의 이분법에 대한 고찰

세 번째 쟁점으로 이코모스 등의 자문기구가 유산의 가치를 '글로벌(global)' 혹은 '국가적(national)'의 양상으로 구도화해서 대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이는 이코모스의 권고 중 "일련의 무나카타타이샤와 무나카타 호족의 기여를 보여주는 고분군의 가치는 국가적인 것이므로, 지역이나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다"<sup>37</sup>라는 기술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즉, 심사대상인 유산이 신청국의 국내적 가치에 머무르는 수준인지, 혹은 세계유산에 걸맞는 글로벌 가치를 충족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이코모스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문기구의 입장을 대변한다.<sup>38</sup>

한편, 당시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입증하는 제사 유적을 통해서 오키노시마의 가치를 보다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본 유산군의 등재 추진과정에서 세계유산추진회의 연구에 참여한 민속학자 신타니 타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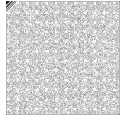
34 함한희, 2015, 「무형문화유산 담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 『무형유산연구』 제1권, pp.30~31 참조.

35 ICOMOS, 2017, op. cit., p.143.

36 '41st session of the Committee', 앞의 영상

37 ICOMOS, 2017, op.cit., p.148.

3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재현·김숙진(2015)은, '지역적 국가적인 중요성과 상징성에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못 해석하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최재현·김숙진, 2015,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전망」 『세계유산연구』 제1권, 건국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세계유산연구소, p.4)



노리(新谷尚紀)는 본 유산군의 가치를 4세기 이후의 한반도의 정권 교체와 오키노시마를 둘러싼 외교 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했다.<sup>39</sup>

신타니(2012)는 오키노시마 제사의 이행은 4세기 후반 이후의 가야 및 백제와의 교류와 더불어, 고구려와의 대항이나 신라와의 긴장 관계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5세기 이후에는 “왜구가 점차 금관가야로부터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의 전환기”에 접어드는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며, 그 흐름을 보다 광역적인 관점에서 오키노시마를 둘러싼 국제성으로 분석하였다.<sup>40</sup> 즉, 오키노시마 제사는 일본 뿐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국제 관계를 나타내는 진정한 정보의 발신이라는 주장이다.<sup>41</sup>

그리고 신타니는 5세기 후반부터 7세기 말 경까지 오키노시마 제사에 변화가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고구려의 압박과 백제 및 신라의 남하에 따른 가야가 그 지배하에 편입된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출토 유물에 새로운 신라풍의 금동 마구(馬具)를 비롯하여 고대 이란의 커트 글라스 등 중앙아시아의 전래품도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부터, 이 시기의 안전향해 기원 역시 다분히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sup>42</sup>

그 밖에도 인류학자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는 쓰시마 해협에서 이루어진 해인(海人) 집단의 반(反)권력적 활동이 사물·사람·정보(モノ・ヒト・情報)의 교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적을 지탱한 원천

은 한반도와 북큐슈를 잇는 해역 지대의 해인들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sup>43</sup> 이처럼 일본 측은,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토대를 만든 해인들의 전통과 그 궤적이 해양 유산으로서 충분히 국제적 의의를 갖는다는 내용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등재 기준 (vi)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sup>44</sup> 그리고 이 같은 선학들의 논지를 종합하여 일본 문화청은 등재신청서상의 제사 유물을 통한 대외 교류와 국제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림 2>는 일본 등재신청서에 반영된 본 유적의 대외 교류도이다.



그림 2.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을 통한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대외 교류도<sup>45</sup> (출처: 日本文化庁, 2016, 前掲書, p.101에서 필자 수정)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등재 이전에 일본 국내의 학계에 의해 연구의 축적과 학술적 기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혹은 글로벌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자문기구의 견지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엄밀히 말해서 협약당사국이 국내법에 의거해 지정한 문화재의 가치를 다시 국제협약의 틀에 맞추어 국가적 혹은 세계적인 관점

39 新谷尚紀, 2012. 「日本民俗学(伝承分析学・traditionology)からみる沖ノ島—日本古代の神祇祭祀の形成と展開—」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 研究報告 II-1, pp. 97~126.

40 新谷, 2012, 上掲書, p.103.

41 新谷, 2012, 上掲書, p.123.

42 新谷, 2012, 上掲書, p.116.

43 秋道智彌, 2012. 「東アジアの海洋文明と海人の世界—宗像・沖ノ島遺産の基盤—」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 研究報告 II-1,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 世界遺産推進会議, p.142.

44 심승구(2015)는 고대 동아시아의 신앙 활동과 전통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해양 문명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바다의 문화유산으로서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심승구, 2015, 「부안 죽막동 해양 제사유적의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 방향」 『한국학논총』 제44권, p.456.)

45 원제목: ‘각 지역과의 대외교류를 반영하는 제사유물(各地域との対外交流を反映する祭祀遺物)’

에서 이분법적인 구도로 재단하듯이 구분하기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곱씹어 보게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통의 보물’을 선정하는 협약이라는 특성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국내적 혹은 글로벌 가치의 구분은 불가피하므로, 향후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연구와 증명 전략이 필요하다.

### Ⅲ. 시사점

이상 본고에서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나아가 향후 세계유산 등재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유효한 제언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잠정목록 등재 확정과 발맞추어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추진협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오키노시마 사례의 경우 시민단체와 상공회, 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 총 30개의 단체를 아우르는 산학연의 협업구조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체계가 약 8년에 걸친 등재 추진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권위적인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다방면의 학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산의 등재 추진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티를 포함시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관 협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례로 2018년 7월 제 4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된 일본의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sup>46</sup> 역시 긴밀한 행정지원 협의체제가 주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유산이 2007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 나가사키 현에서는 세계유산학술위원회 및 세계유산 등재추진회의를 구축해 관계 시(市)·정(町)장이 정보를 공유하며 조기 등재를 추진해 왔다.<sup>47</sup> 그리고 나가사키현 세계

유산등재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부서 내 활발한 상호 유대를 도모한 점 또한 오키노시마와 동일한 맥락에서 등재 활동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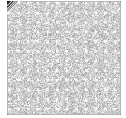
둘째, 효과적인 등재를 위해서는 유산의 명칭과 구성 요소의 유기적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다소 평범한 명칭이었던 ‘무나카타·오키노시마에 신성한 섬(Sacred Island)’을 추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1회 위원회 심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위원국들이 ‘애니미즘(animism)’ 및 ‘영적(spiritual)’ 등의 용어를 강조하여 설명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같은 명칭은 유네스코가 1994년 글로벌 전략 이후 ‘신성성(神聖性)’에 주안점을 둔 토착민과 신앙, 주민과 토지와와의 융합적인 상호작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신청국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2013년 후지 산을 ‘성스러운 장소(Sacred Place)’로 신격화한데 이어 오키노시마 역시 ‘신이 깃든 섬’임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신성성에 기반하는 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명칭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유산에 내재된 살아있는 전통의 가치를 명확히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제시자료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 오키노시마의 사례가 시사 하는 바와 같이, 등재 기준 (vi)의 경우 사건, 전통, 신앙 입증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요하므로 무엇보다 이를 반영한 각종 문헌기록, 예술작품, 사진 등 물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무나카타 세 여신 신앙의 출현 장소에 대한 문헌상의 내용과 현재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코모스가 등재 기준 (vi)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과거와 현재의 서술을 면밀히 대조·검토하는 고고학적 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균형적인 관점에서 유산이 지니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를 증명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이행

46 원 명칭은 ‘長崎と天草地方の潜伏キリシタン関連遺産’이며, 공식 영문 명칭은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이다.

47 〈부산일보〉, 2018. 8. 2 “[피란수도에서 평화수도로] 11. 일본 등재 사례 - 나가사키 크리스천 유산”



해야 한다. 원론적 관점에서 모든 세계유산은 협약 체결국의 귀중한 문화재이며, 결국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통해 어떻게 보편적인 가치를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및 21개 위원국 역시 세계유산목록의 불균형 시정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균형성에 입각한 보존 원칙과 등재 지침을 수립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잠정 유산목록을 재점검해 보고, 기존 세계유산목록과 대비하여 시대·유형·등재 기준별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underrepresented) 분야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약당사국 간 및 남북한 협력, 그리고 폭넓은 지역의 교류를 통한 문화 외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찍이 Winter(2015) 등 서구 학자들은 '유산 외교 (heritage diplomacy)<sup>48</sup>를 문화유산의 주요 담론으로 연구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최종 교섭 과정이 등재의 화룡점정이 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지나친 정치화로의 변질은 경계의 대상이지만,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 등재사업이 엄연히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가 반영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내세운 특화된 유산 외교활동을 제발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문화유산과 공존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되 유산을 매개로 한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오키노시마 유산군의 등재 추진 과정에서 무나카타 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김해시와 박물관 전시 교류를 통해 일찍이 유산의 가치를 홍보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국내 문화재 중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해외 유산 사례를 발굴하여 창의적으로 교류를 증

진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일례로 2017년 10월 사적 제 541호로 지정된 '부안 죽막동 유적'<sup>49</sup>의 잠정가치를 오키노시마와의 비교 연구 및 국제 심포지엄 등 학술의 장을 통해 널리 발신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같은 해 11월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을 2020년에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된 데 이어, 시민사회와 산학연이 연계하여 연속유산의 보존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입증에 위한 노력도 동시다발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예술가 출신의 일본 문화청장의 '수채화 로비'의 일례를 참고로, 장기적으로 유산 외교의 무대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 30주년을 맞이한 현재야말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한 협력과 한류 등을 활용한 다자 문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탄력을 받아 향후 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유산 보존 및 등재에 앞장선다면, 세계유산협약 이행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판단된다.

#### IV. 맺음말

인류 공통의 보물을 보존하는 취지의 세계유산은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이하며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2년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은 아름다움을 겨루는 미인대회가 아니다'<sup>50</sup>라고 강조했듯이,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은 보존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후세에 계승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활동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등재라는 수단을 통하여 각국의 귀중한 유산을 국제

48 Winter, Tim, 2015, 'Heritage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10), pp. 997~1015.

49 심승구, 앞의 논문, pp. 467~474. '죽막동 해양제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방향'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50 Bokova, Irina, 2012, 'Address by Ms Irina Bokova, UNESCO director-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opening of the 36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ussian Federation,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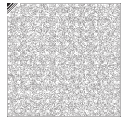
사회에 인식시키고 보호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전에 기여하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이다. 협약당사국의 입장에서도, 1092건에 달하는 유산을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국제적 보호 체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더 나은 관리 역량과 유산 보존 모니터링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 모든 문화유산은 각국의 국민들이 유구한 세월을 통해 지켜 온 존재 이유(raison d'être)<sup>51</sup>이자, 고유의 정체성이 응축된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본고는 최근의 급변하는 세계유산의 등재 흐름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추진활동을 살펴 보았다. 물론 오키노시마 유산군은 특수한 사례이고 일본의 노력 역시 일례로 간주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본고에서 다룬 쟁점들이 오늘날 세계유산 등재의 보편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을 이룬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가 국제협약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석하는 주체들 간의 참여화되는 의견 대립 구도와 쟁점, 조정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과 같은 최신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하며, 이는 향후 과제로 삼기로 한다.

나아가 협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등재 활동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언사항 가운데 민관 협치 구축을 비롯하여 남북한 협력과 한류 등을 활용한 다자 문화외교는 우리나라의 고유성과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해안이 요구된다.

세계유산협약은 기존의 유럽 중심의 편중에서 점진적으로나마 균형을 향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역시 문화유산의 이해를 둘러싼 주체 간의 대립과 불균형의 간극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약이 당면한 과제와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등재와 보전이 상생하는 문화유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리라고 전망한다.

51 Tomšič, Daniela, 2015, 'Individual Heritage's Need as a Constitutive Component for a Holistic Research of Cultural Heritage Impact', Heritage Counts, Antwerp - Apeldoorn. Garant, p.81.



## 참고문헌

- 심승구, 2015, 「부안 죽막동 해양 제사유적의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 방향」 『한국학논총』 제44권, pp. 455~477
- 최재현 · 김숙진, 2015,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전망」 『세계유산연구』 제1권, 건국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세계유산연구소, pp. 1~11
- 함한희, 2015, 「무형문화유산 담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 『무형유산연구』 제1권, pp. 19~35
- Batisse, Michel and Bolla, Gerard. 2005, The Invention of "World Heritage", Les Cahiers d' Histoire, Association des anciens fonctionnaires de l' UNESCO, Paris, p.27
- Meskell, Lynn, 2013, 'UNESCO's World Heritage Convention at 40: Challeng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of International Heritage Conservation', Current Anthropology, 54(4), p. 489
- Meskell, L., Liuzza. C., Bertacchini, E. and Saccone, D. 2015. 'Multilateralism and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making, States Parties and political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5), pp. 423~440
- Schmitt, Thomas, 2009, 'Global Cultural Governance: Decision Making Concerning World Heritage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Erdkunde 63(2), p. 110
- Tomšič, Daniela, 2015, 'Individual Heritage's Need as a Constitutive Component for a Holistic Research of Cultural Heritage Impact', Heritage Counts, Antwerp – Apeldoorn. Garant, p. 81
- Winter, Tim, 2015, 'Heritage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10), pp. 997~1015

## 보고서 및 언론자료

- 〈김해뉴스〉, 2015. 6. 17. "“금기의 땅, 오키노시마섬 특별전”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보도자료, 2017년 10월 19일자,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 고대 해양 제사 흔적 · 백제~조선 시대 해양 제사 문화 변천과정 등 -
- 문화재청, 2018,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한글 번역본 p. 54
- 〈부산일보〉, 2018. 8. 2. "11. 일본 등재 사례 - 나가사키 크리스천 유산"
- 日本文化庁, 2016, 「『神宿る島』宗像 · 沖ノ島と関連遺産群」 『世界遺産一覽表への記載推薦書(全文)』, 日本, pp.26, 101
- 〈日本經濟新聞〉, 2007. 5. 14. '石見銀山遺跡で反論書作成へ'
- 〈日本經濟新聞〉, 2017. 5. 19. '官房長官「一括登録へ努力」沖ノ島の世界遺産登録'
- 〈毎日新聞〉, 2017. 7. 17. '沖ノ島の一括登録 文化庁長官の水彩画が威力'
- 白石太一郎, 2009, 『考古学からみた倭国』, 青木書店, p.254
- 新谷尚紀, 2012, 「日本民俗学(伝承分析学 · traditionology)からみる沖ノ島 - 日本 古代の神祇祭祀の形成と展開 -」 『宗像 · 沖ノ島と関連遺産群』, 研究報告 II-1, pp.97~126
- 秋道智彌, 2012, 「東アジアの海洋文明と海人の世界 - 宗像 · 沖ノ島遺産の基盤 -」 『宗像 · 沖ノ島と関連遺産群』, 研究報告 II-1, 「宗像 · 沖ノ島と関連遺産群」世界遺産推進会議, pp.127~144
- Bokova, Irina, 2012, 'Address by Ms Irina Bokova, UNESCO director-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opening of the 36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ain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p.3
- ICOMOS, 2017, Evaluations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ICOMOS report for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HC-17/41.COM/INF.8B1), pp. 136~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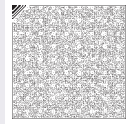


## 참고문헌

- Japan, 2016, The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 Nomination Dossier, Agency for Cultural Affairs, Japan, p.26
- UNESCO, 2002, The Budapest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WHC-02/CONF.202/5), World Heritage Committee, p.1
- UNESCO, 2007, Proposal for a 'Fifth C' to be added to the Strategic Objectives, (WHC-07/31.COM/13B), World Heritage Committee, p.2
- UNESCO, 2016,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16/01), World Heritage Centre, p.16
- UNESCO, 2016, Summary records of the debates held in Istanbul, (WHC/16/40.COM.INF.19), World Heritage Committee, pp.188-189

## 웹사이트

- 무나카타타이샤 홈페이지 (<http://www.munakata-taisha.or.jp/html/sanmiya.html>)
-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추진회의 홈페이지, (<http://www.okinoshima-heritage.jp/promotions/>)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en/list/>)
- '41st session of the Committee', 2017년 7월 9일자 심의 영상, 'Item 8B.19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 (<https://whc.unesco.org/en/sessions/41com/records/?pattern=okinoshima#t-qz3hmdMiMg2209>)



# A study on Issues and Implications of World Heritage Listing through the Case of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Munakata Region’ in Japan

Lee, Chungsun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ology,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Corresponding Author : zenith701\_@naver.com

## Abstract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irst inscription of 12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 1978. Based on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issues of the inscription of cultural heritage over the past 40 years.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study of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Munakata Region’ nominated by Japan, which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t the 41st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17. Also, it demonstrates the recent trend and investigates the issues of imbalances in the evaluation and the decisions among relevant actors in the nomination process of World Heritage.

Furthermore, this article attempts to derive feasible implications and lessons, and to generate heritage discourse by examining Japan’s management in ‘heritage diplomac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is rapidly changing in the course of its nearly half a century of implementation. In conclusion,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Korea with strategic guidance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its entry into the Convention, and to steer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inscrip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

**Keywords** World Heritage Convention, Global Strategy, Living tradition, Heritage diplomacy, Okinoshima

**Received** 2018. 06. 05 • **Revised** 2018. 08. 13 • **Accepted** 2018. 08. 22